

국힘, 1차 경선 토론 대진표 확정... “이재명 꺾을 것” 한 목소리

국민의힘은 1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A조에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대선 후보가, B조에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가 각각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막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토론회 조를 결정했다.

후보자들은 각자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자신의 조와 번호를 선택했다. 안철수·김문수·유정복·이철우·나경원·양향자·한동훈·홍준표 후보 순이다. 각 조마다 다른 토론 주제를 두고, 본인의 상대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A조의 주제는 ‘청년미래’이고, B조는 ‘사회통합’이다.

가장 먼저 안 후보가 A조(2번)로 지정된 자리에 앉았고, 이어 김 후보(3번)와 유 후보(1번)도 같은 조를 택했다.

계속해서 이 후보(1번)와 나 후보(2번)는 B조로 향했다. 양 후보가 A조(4번)를 선택하면서 A조 인원이 모두 채워졌고, 남은 B조는 한 후보(4번)와 홍 후보(3번)로 채워졌다.

A조와 B조의 토론회는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하루씩 나눠서 열린다.

이후 21~22일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

19일 A조 토론에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20일 B조 토론에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경선 후보들은 조 추첨이 마무리된 이후 각각 1분씩 출마의 변을 밝혔다.

유 후보는 “두 번의 장관 청문회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해 우리가 상대하게 될 이재명 후보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며 “범죄와 비리, 거짓말을 적대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유정복”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고, 기업가로서 일자리를 만들며, 인수위원장으로 국정을 살게한 사람”이라며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다. 중도층 표심을 얻어 승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이런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보수 정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믿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 인제 대국으로 만든 정당”이라며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드는 그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너무 같음이 싫다. 이 나

라를 새롭게 만드는 박정희 정신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를 살리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이재우가 되겠다”며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를 기억해달라”고 했다.

나 후보는 “최종하다. 지켜내지 못했다. 하지만 법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패배하지 않는다”며 “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린 여러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나라가 참 혼란스럽다. 그제 우리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라며 “이번 대선을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이냐의 구도도 보지 않는다. 홍준표 정부를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부를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로 국민에게 물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한 후보는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애국심은 우리 모두 하나 아닌가”라며 “이재명이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막았다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다. 제가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공정한 경선을 당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경선을 감동의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 실력과 품격으로 겨루되 비방과 모략은 설 자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경선 후보들이 자리에 앉았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 유정복, 김문수, 양향자,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철우, 안철수, 유정복 후보 /뉴스

없어야 한다”며 “후보들에게 요청한다. 앞으로 치열하되 품격있는 경선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하나 마나 한 경선이다. 이재명 후보를

세워놓고 나머지 후보는 둘러리 서는 경선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우리보다 훨씬 될 것”이라며 “최종 후보는 한 명이다. 나머지 7명은 뿔뿔 뿔쳐서 공동정부를 창출한다는 심정으로 싸워야 한다”고 당

부했다.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위는 철저한 중립과 공정의 정신으로 잘 관리하겠다”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

민주 경선 주자, 대통령실 세종 이전 공감... 시기·방법은 온도 차

이재명 “사회적 합의 거쳐야”... 실행 시기·임시 집무실에 즉답 피해

김동연 “취임 즉시 세종서 집무” 김경수 “지방선거서 행정수도 개헌 추진”

이번 주 주말 충청권 순회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일제히 ‘균형 발전’을 앞세워 중원 표심 구애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시기와 방법을 두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이 후보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의 실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당선 직후부터 세종 집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어디를 집무실로 쓸지도 밝히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당선 직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당분간 사용한 뒤 민간에 공개한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고 임기 내 세종 집무실로 옮겨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개헌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강훈식 캠프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자세한 입장은 이 후보가 토론회 등에서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세종시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당선이 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시에서 대통령 근무와 집무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 4·19 학생혁명기념탑을 찾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 규모 축소해

취임 즉시 세종에서 근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금의 대통령실 규모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라며 “기득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 축소, 기재재정부 해체, 검찰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을 외교와 안보 라인을 제외하고 지금의 5분의 1인 100명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진 김경수 후보는 일찌감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집무실은 청와대로 돌아가거나 정부 광화문 청사를 이용할

수 있다”며 “세종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확대하거나 총리 집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당장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추진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니 임시로 서울과 세종의 집무실을 동시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 후보가 당 대표 시절 검토를 지시했던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보더라도 지난번(2004년)과 같은 그런(위헌)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먼저 (행정수도)를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 /뉴스

대선 분위기 안나는 광주·전남... 민주 ‘부자 몸조심’·국힘 ‘탄핵위축’

시·도당 대선 조직 가동... 외부 활동은 잠잠

주요 정당의 제21대 대선 경선이 시작됐으나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은 예년과 달리 선거 분위기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잠잠한 분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힘은 지역 활동이 위축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일극체제에 따른 ‘부자 몸조심’ 기조로 지역 정치권이 정중동 자세를 보인다.

17일 광주·전남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이 대선 본선을 대비해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시·도당은 본선 후보에게 제시할 지역발전 공약을 가다듬고 선대위 구성, 지역 연락책 보완 등 대선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외부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다시피 유권자들이 대선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정국인 만큼 지역 정치인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됐다. 본선 주

자를 뽑는 순회경선마저 생략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대폭 줄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중 이철우 경북지사만이 지난 16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공약을 발표했을 뿐 경선 국면에서 광주·전남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나, 지역 정치권도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분위기가 강하다.

기존 대선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특정 후보 지지선언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이 들쭉였으나, 지금은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지지선언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어대명 속에 ‘부자 몸조심해야 한다’는 기류까지 더해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도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정치권은 민주당 경선이 흥행하지 못한 채 유권자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본 선거에서 광주·전남 투표율은 물론 득표율까지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

주최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2025. 5. 10. - 5. 11. 장성 황룡강변

전야제 5. 9.(금) | 뮤직 페스티벌 5. 10.(토) | 나들이 5. 12.(월) - 5. 18.(일)